

국외연수보고서

2005 공공도서관협의회 선진도서관 해외연수

- 서유럽지역 도서관 연수결과 보고서-

2005. 6

공공도서관협의회

차 례

1. 연수개요	1
2. 연수대상도서관	2
3. 연수 일정	3
4. 연수단 명단	4
5. 국가별 연수결과 보고서	5
6. 마무리	47

1. 연수개요

가. 연수목적

- 외국 선진도서관의 문헌정보 서비스 및 도서관 운영, 선진국의 도서관협력사업 등에 관하여 현장 체험을 통한 첨단정보 습득 및 전문성 제고 및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

나. 추진배경

- 공공도서관협의회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제1차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다. 대상국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라. 연수단 : 19명(공공도서관 17명, 국립도서관 2명)

마. 기 간 : 2005. 5. 24(화) ~ 6. 2(목) (10일간)

바. 견학중점

-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및 도서관 운영 시스템
- 디지털자료실 운영
- 도서관협력사업
-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현황

2. 연수대상 도서관

도서관 명	주소
<p>웨스트민스터 참고도서관 (London Westminster Reference Library)</p>	<p>35 St. Martin Street London WC2 Tel : 44 20 7641 4636</p>
<p>뉴몰든 공공도서관 (New Malden Library & I.T. Learning Centre)</p>	<p>Kingston Road, Surrey KT3 3NR Tel : 44 20 8547 6540</p>
<p>퐁피두센터 도서관 (Bibliothèque Publique D' information)</p>	<p>BP1 75019 PARIS CEDX Tel : 33 1 44 78 12 75 - http://www.bpi.fr</p>
<p>프랑스 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p>	<p>Quai Francois-Mauriac 75706 Paris Cedex 13 Tel : 33 1 53 79 59 59 - http://www.bnf.fr</p>
<p>독일 국립도서관 (Die Deutsche Bibliothek)</p>	<p>Adickesallee 1 60322 Frankfurt am Main Tel : 49 (0)69 15250 - http://www.ddb.de</p>
<p>프랑크푸르트 시립도서관 (Stadtteilbibliothek NordWestStadtBibliothek)</p>	<p>Stadtbücherei – die Medienzentrale Stadtteilbibliothek Nordweststadt Nidaforum 6 60439 Frankfurt am Main Tel : 49 (0)69 212 32219</p>

3. 연수 일정

월일	지역	교통편	시간	세 부 일 정
제1일 05/24(화)	인 천 런 던	OZ 521 전용버스	13:30 17:05 19:00	인천 국제공항 출발 런던 공항 도착 호텔 투숙 및 휴식
제2일 05/25(수)	런 던	전용버스	08:00 12:00 18:00	호텔 조식 대영 박물관과 대영도서관 등 탐방 중식 후, 공식 일정 웨스트민스터참고도서관 방문 호텔 투숙 및 휴식
제3일 05/26(목)	런 던 파 리	전용버스 TRAIN 전용버스	08:00 12:00 18:27 22:23 23:30	호텔 조식 뉴몰든공공도서관 방문 중식 후 문화시설 탐방 E-STAR편으로 런던 워털루 역 출발 파리 북역 도착, 호텔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제4일 05/27(금)	파 리	전용버스	08:00 09:00 18:00	호텔 조식후, 공식 일정 및 탐방 퐁피두센터도서관 방문 호텔 투숙 및 휴식
제5일 05/28(토)	파 리	전용버스	07:00 08:00 18:00	호텔 조식 문화시설 탐방 호텔 투숙 및 휴식
제6일 05/29(일)	파 리	전용버스	08:00 10:00 21:00	호텔 조식 문화시설 탐방 호텔 투숙 및 휴식
제7일 05/30(월)	파 리	전용버스	08:00 18:00	호텔 조식 프랑스 국립도서관 방문 호텔 투숙 및 휴식
제8일 05/31(화)	파 리 프랑크푸르트	AF 1618 전용버스	07:00 09:45 11:10 13:00 18:0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파리 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독일 국립도서관 방문 호텔 투숙 및 휴식
제9일 06/01(수)	프랑크푸르트	전용버스 OZ 542	08:00 13:00 19:00	호텔 조식 프랑크푸르트 시립도서관 방문 문화시설 탐방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
제10일 06/02(목)	인 천		12:00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4. 연수단 명단

번호	지역별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비고
1	국립	국립중앙도서관	5급	이홍영	남	단장
2		“	8급	이유경	여	총무
3	서울	남산도서관	6급	이향화	여	
4		마포평생학습관	6급	남명희	여	
5	부산	중앙 수정분관	6급	김화숙	여	
6	대구	서부도서관	6급	김동락	남	
7	인천	주안도서관	6급	고재훈	남	
8	광주	광주시립도서관	7급	박민정	여	
9	대전	갈마 가수원분관	6급	이선자	여	
10	울산	울주도서관	6급	곽임수	여	
11	경기	안성시립도서관	7급	공정자	여	
12		성남도서관	6급	김경애	여	
13	강원	철원도서관	6급	나중선	여	
14	충북	금왕도서관	6급	안승헌	남	
15	충남	보령웅천도서관	6급	박찬희	여	
16	전북	익산시립도서관	6급	김병재	남	
17	전남	나주공공도서관	6급	김은주	여	
18	경북	안동도서관	6급	이상욱	남	
19	경남	진해시립도서관	7급	이정재	여	
계		19명				

5. 국가별 연수결과 보고서

2005 공공도서관협의회 선진도서관 해외연수

- 서유럽지역 도서관 연수결과 보고서-

□ 연수기간

- 2005. 5. 24(화) ~ 6. 2(목)

□ 연수도서관

- 웨스트민스터참고도서관
- 뉴몰든공공도서관
- 풍피두센터도서관
- 프랑스국립도서관
- 독일국립도서관
- 프랑크푸르트시립도서관

런던 웨스트민스터 참고도서관
(London Westminster Reference Library)



1. 일반현황

가. 이용시간

- 월~금 : 10:00~20:00 (Art Library 23:00)
- 토요일 : 10:00~17:00
- 일요일 : 휴관



< 이용시간 안내판 >



< 도서관 출입문 >

나. 장서수

- 약 20만권 소장(년간 1,000여권의 장서 구입)
- 기타 정부간행물,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다수

다. 직원 및 근무 현황

- 정직원 12명, 임시직 6명(총18명)
- 교대 근무로 주40시간 근무

2. 운영현황

가. 자료실 현황

- 1층
 - 자료 : 비즈니스와 법률관련 자료 및 정부간행물, 신문&연속간행물
 - 시설 : 예약용PC 1대, 인터넷용PC 3대, 프린트 2대,
 마이크로필름확대기 1대, 복사기 1대
- 2층 : 공연, 댄스, TV&라디오 관련 자료
- 3층 : 예술&디자인 관련 자료
(오래되거나 고가의 예술관련 자료들은 서고에 따로 보관)



< 예술·디자인관련 서고 >



< 자료와 인터넷의 공존 >

나. 자료 이용

- 도서관 방문 이용
 - 검색용 PC를 통하여 검색된 자료를 대출 의뢰하면 직원이 직접 서가에서 찾아줌



< 현재도 사용중인 목록함 >



< 각종 프로그램 팜플렛 >

o 대출 및 반납

- 대출

- 권수 : 도서 및 잡지 15권, 비디오테이프와 DVD 오디오북은 8개, CD 6개,
- 기간 : 3주(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하여 6번까지 대출연장 신청 가능, 비디오테이프는 연기신청이 불가능)
- 재발급 : 카드 분실시 재발급 수수료 부과
- 대출가능지역 : 12개의 웨스트민스터 도서관
- 사용료 : 도서 대출은 무료, 비도서자료 대출은 유료

- 반납

- 반납장소 : 일반도서는 웨스트민스터 12개 도서관중 어느 곳이라도 반납 가능하나 비디오테이프는 반드시 대출했던 곳에 반납
- 연체료 : 소정의 연체료가 부과

o Home Library Service(방문대출)

- 장애자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어 도서관을 찾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모든 도서관에서 직원들이 집으로 직접 자료를 대출해 줌
-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o 무료인터넷 이용

- 모든 도서관에서 무료로 인터넷과 CD롬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요가 많을 때는 일주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

다. 성인강좌 프로그램 (모든 행사는 무료이지만 예약이 필수)

- 「인터넷 맛보기 강좌」
 - 인터넷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1:1 수업방식으로 진행되며, E-mail이나 인터넷 검색 방법을 가르침
- 「비즈니스 세계에서 남보다 앞서자」
 - 독점적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시장지식, 사업기획에 대한 토대, 그리고 회사와 상품에 대한 정보 소개(다과제공)
- 「1890년대의 퇴폐적이었던 런던...」
 - 유명작가들과 동행하여 1890년대 퇴폐기 작품의 무대였던 장소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90분 동안 산책을 하며 이루어짐
- 「Art Library Open Evening」
 - 숨겨져있는 4만여권의 Art&Design Collection으로 진귀하고 값비싸고 아름다운 책들을 보며 예술정보를 찾는 방법을 안내(다과제공)

라. 향후 계획

- 웨스트민스터 참고도서관의 앞으로의 계획은 최상의 참고서비스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전자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것이라고 하였음

3. 결론 및 연수소감

웨스트민스터 지역의 12개 공공도서관들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자료들을 구비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총 100만권 이상의 도서와 다양한 비도서자료(VideoTape, DVD, CD,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들을 소장하고 있음

우리가 맨 처음 방문한 『Westminster Reference Library』는 1700년대에 뉴턴의 생가였던 곳을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그래서인지 선진국 도서관 방문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규모가 매우 협소하였음. 도서관이 시내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근처의 비즈니스맨들이 주 고객이었으며, 소장자료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임. 그래서 직접 도서관을 둘러보고서야 도서관 명칭에 들어있는 “Reference”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음.

웨스트민스터 참고도서관은 건물이 오래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이 아주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들을 규모있게 잘 배치하여 누구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늑하게 꾸며놓아 인상적이었음.

특이한 점은, 도서관 건물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도서관 이용자들도 근처 상가나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이것 또한 영국 공공도서관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였음.

자료실내에는 곳곳에 인터넷과 자료검색용 PC가 설치되어 있어 다소 산만한 느낌을 받았으나 실제로 이용자들을 둘러보면서 한 곳에서 자료와 인터넷까지 충족할 수 있는 도서관 구조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일반도서 뿐만 아니라 연속간행물과 각종의 비도서자료들을 모두 대출해 주는점과 획일적인 수업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형태의 강좌프로그램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며 특히, 이용자가 현저히 적거나 어린이실 운영이 곤란한 우리나라 몇몇 도서관들을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는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했음.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분관 및 이동도서관 숫자를 포함하여 약 3,800개가 있는데, 1년에 50million pounds(한화로 환산 약900억원)의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주 수입원으로는 연체료, 자료예약료, 오디오, 비디오, CD-ROM 대출 및 복사료, on-line검색서비스 이용료 등 이라고 한다. 부족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재정을 연체료나 기타 사용료등으로 충당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함.

이향화 (서울 남산도서관)

남명희 (서울 마포평생학습관)

김화숙 (부산 중앙도서관수정분관)

뉴몰든 공공도서관

(New Malden Library & I.T. Learning Centre)



1. 일반 현황

가. 위치

- 런던 남서쪽의 royal borough of kingston upon thames에 위치
 - 영국 그레이터런던의 자치구. 면적은 38km², 인구는 17만 2,327명
 - 1965년 그레이트런던에 편입.

나. 주소

New Malden Library & I.T. Learning Centre
48 Kings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3LY

다. 주요기능

-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몰든 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 아동실, 문학류와 간행물실, 시청각 자료실, 문화강좌실 운영
-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라. 시설

- 1층 : 아동실(Children's room), 문학류와 간행물실(fiction room), 비도서자료(audio visual)
- 2층 : 문화강좌실(meeting hall) 및 정보화교육(I.T learning centre)



<개관을 기다리는 학생들>



< 현관 입구 >

2. 운영현황

가. 이용안내

- 도서관 이용시간
 - 월~금 : 10:00~20:00
 - 화~목 : 10:00~17:30
 - 토 : 09:00-17:30
- 휴관일 : 수요일, 일요일



< 도서관 이용 안내 >

- 대출 : 1주 3권 대출
 - 도서연체 시 벌금을 부과(어린이는 제외)
 - DVD, 비디오테이프: 어린이 대출 불가

나. 자료구입

- 중앙부처에서 일괄구입 및 장비완료 후 지역도서관으로 배송

다. 운영현황

- 학교연계 프로그램 개발
 - 주변에 학교도서관이 없으므로 학교에서 교사의 인솔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서관이용을 유도함
- 북세일코너 운영
 - 오래된 장서들은 현관입구에서 북세일을 하고 있었고, 수익금은 지방 정부로 입금됨



<북세일 코너의 자료들>

<모든도서가 10펜스에 판매>

<동전을 확대해서 세일가격 안내 >

- 개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과 반납 라인이 다름



<책을 대출중인 초등학생들>



<책을 반납중인 시민들>

라. 평생교육 : 사용은 구청에 주민이 사용허가서를 제출 후 이용

- 문화강좌실 : 당일 요가강습 중
- 컴퓨터교육장 : 당일 컴퓨터 교육중
- 문화프로그램 내용 : 초대작가와 독서토론회, Study time



<아르헨티나 탱고 강습안내 및
I·T 교육안내>



<어린이실 전경>



< 문학자료실 >



< 천정에 부착한 사인 물 >



< 어린이실 내부 >

3. 결론 및 연주소감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초등학생들이 교사의 인솔로 3주에 1회씩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대출하고 있었으며, 현관 입구에 Book Sale코너를 마련하여 오래된 책을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인지 Book Sale코너에는 PENCE 동전이 확대되어 세일 가격(10펜스)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홍보하고 있었음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어 반납과 대출라인이 달랐는데, 업무상 간혹 대출이용자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할 경우 엉뚱한 이용자에게 대출이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았음. 또한 일반 열람실은 없고 자료실과 문화강좌실로만 구성되어 있어 자료이용의 집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었음. 한국에도 일고 있는 Bookstart 운동에 관하여 질문하니 당연히 Bookstart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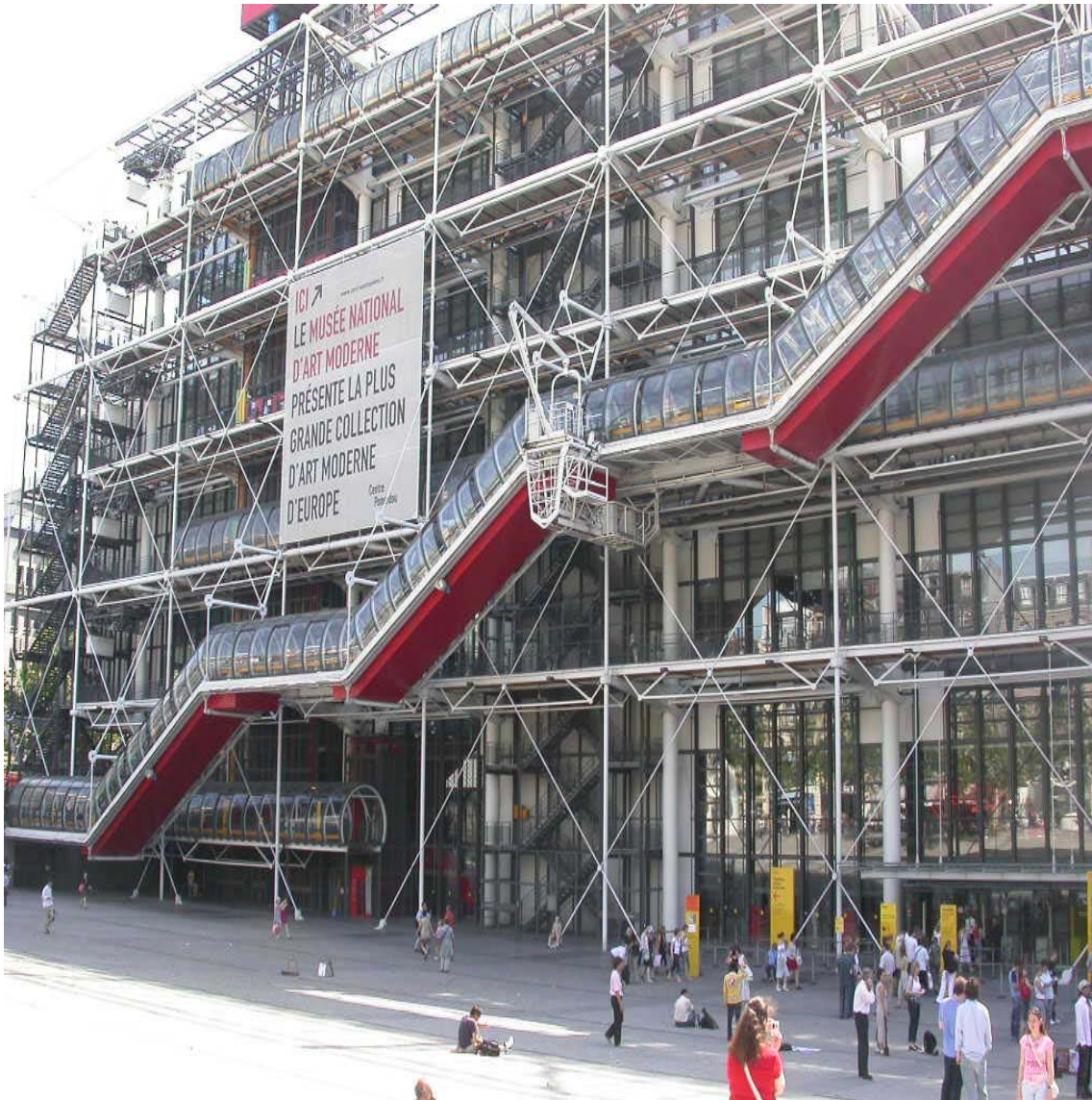
그리고 사서들이 자료실 중앙에 위치한 라운드 카운터에서 근무하여 통유리로 설치한 어린이 자료실과 문학자료실의 이용자와 스텝의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적절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나중선 (강원 철원도서관)

곽임수 (울산 울주도서관)

박민정 (광주 시립도서관)

퐁피두센터도서관 (Bibliothèque Publique D'information)



1. 일반현황

가. 개요

구 시장터에 세워진 국립풍피두예술문화센터는 복합문화공간의 전형으로 미술, 음악, 영화 등 현대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조르주 풍피두 대통령이 제안하여 1971년 구상되어 1977년 2월 개관한 초현대식 건물이다. 건물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에스컬레이터나 환기구, 통로, 가스관, 전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실내에는 기둥이 없는 독특한 건축기법을 사용했다.

국립풍피두예술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로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영화보관소, 산업예술센터, 음악연구감상소, 도서관이 함께 있는데, 도서관은 1층~3층에 위치하고 있다.



< 입장을 기다리는 이용자들 >

나. 기능 및 목적

프랑스 국가에서 세운 공공참고도서관(The Public Reference Library)이다. 도서나 비도서자료를 누구나 사용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으로 관외대출은 안된다. 필요한 자료를 복사, 인쇄할 때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 시설

- 도서관 건물연면적 : 10,750m²
- 좌석수 : 2,200석 (개인학습 120석, 음악감상 60석, 필름열람 148석, 멀티미디어 370석 등 포함)

○ 층별 현황

< 1층 >

- 정보봉사(1개소) : 종합적인 참고봉사
- 전시실
- 취업정보 코너
- 시각장애인실(5) : 점자도서, 녹음자료 등 소장, 점자도서 제작, 장애인 안내 등 자원봉사자 활용
- 참고도서, 실생활에 관련된 도서 (파리 지도 등, 관광객을 위한 도서도 비치)
- 인터넷 이용코너 : 1일 45분 사용 가능



< 시각장애인실 외부, 내부 >



< 도서관 내부 >

< 2층 >

- 정보봉사(5개소) : 주제별 참고봉사
- 간행물실(BPI) : 도서관 사서를 위한 지침서, 연구소 발간자료 자체 발간, 기사색인목록(Apartheid) 구축으로 영화평 등 각종 기사 검색 가능, 발간자료 전시
- 세계 15개국 TV청취 코너(독일, 중국, 미국)
- 어학 청취실 : 외국어, 운전면허 자격증 등 학습
- 마이크로필름, 전세계 신문 열람
- 철학·종교·사회학, 통계학, 정치학, 교육학, 민속학, 과학, 경제학 등의 단행본과 정기간행물(0~6까지의 주제자료)
- 참고봉사실(RADIS-ses responses a distance)
: 도서관에 직접 오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참고 질의를 48시간 내에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에 해결해 줌. 풍피드도서관에 없는 자료일 경우 외부 도서관 또는 국외 도서관 연결하여 참고봉사를 실시하며 현재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 복사실
- 매점



< 정보봉사 코너 >



< 참고봉사실(RADIS) >



< 분류 안내 짜인 >



< 도서관에서 발행된 간행물(BPI) 전시 >

< 3층 >

- 정보봉사(4개소) : 주제별 참고봉사
- 음악, 영화, 예술, 여가, 스포츠, 문학, 역사·지리, 필름, 음악 악보 및 가사와 정기간행물(7~9까지의 주제자료)
- 복사실



< 개인조명을 갖춘 열람석 >

2. 운영현황

가. 운영시간

- 평일(월,수,목,금) : 12:00~22:00 /토·공휴일 : 11:00~22:00
 - 1주당 62시간, 연간 3,300시간 개관
- 휴관일 : 매주 화요일 및 노동절

나. 이용현황

- 연간 2백만명(1일 평균 6,500명), 평균 이용시간 3시간
- 1일 평균 이용자료
 - 단행본 8,500, 시청각자료 500, 개인 학습 800, 전자자료 2,000, 인터넷 600

다. 직원현황

- 정규직 : 252명(주 35시간 근무), 사서 포함
- 시간제 근로자 : 연간 70,000시간 고용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파트타임 근무자들이 1일 50명씩 투입되어 3시간 단위로 교대 근무하면서 신속하게 자료 정리)

라. 예산현황 : 1년예산 7,999,000유로, 도서구입비 1,617,410유로
(전체 예산의 20%)

마. 장서현황

- 단행본 358,504책
- 정기간행물(잡지 등) 2,500종
- 지도, 카드 6,710종
- 악보 2,000종

- 기록영화와 만화영화 2,312필름
- 145개 외국어 학습용 자료 1,200종
- 음악 CD : 13,213종
- 도서관 자체 제작 CD : 1,400종
- 자료는 400,000여권 수준을 유지
(매년 여분은 정리하여 지역 공공도서관으로 이관)
- 연간 제적도서 12,000권 정도



< 비도서자료 열람시설 >



<조명시설을 갖춘 서가>

바. 조 직

도서관의 외부환경 변화와 기술 발달, 이용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4개부서로 나누어 운영

- 장서개발부(Documentary development) : 시청각자료, 서지통정, 인쇄 및 전자자료, 공공정보, 청각자료, 어학 및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도서관 관리
- 공공봉사부(Services to the public) : 국가 독서진흥정책, 장애인 봉사, 상호협력, 평가, 시설관리, 정보 및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 홈페이지 관리
- 문화활동부(Cultural) : 영화상영, 행사(Cinema du reel Festival),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 및 배포, 국제협력활동
- 지원부(Resouces and means) : 예산, 법제, 연수

사. 문화활동

- 전시회, 토론 및 심포지엄(연 60회), 영화상영, Cinema du reel Festival

아. 공공도서관과 협력활동 (2002년부터)

- 장애인 봉사, 전자자료 공유, 연구 및 직원 연수 실시 등



< 풍피드센터도서관 앞에서 >

3. 결론 및 연주소감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풍피드센터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관시간 2시간전부터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시민을 연상케 했다.

도서관 내부에 들어서면 기둥이 없어 넓은 공간이 한눈에 들어온다. 천장에는 배기관이 숨어있지 않고 그대로 보인다. 견학하면서 컴퓨터에 Samsung이라고 써있어서 놀랐는데, 삼성전자에서 기증한 것으로 프랑스의 유명한 도서관에 우리나라 제품이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풍피드센터도서관을 견학하면서 특징적이라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었으면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 자료에 대한 주제 구분 등 각종 싸인(간판)이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 3를 오렌지색깔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크게 제작하였고, 서가에 사회과학 주제는 오렌지색 싸인을 사용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싸인은 흰색, 검정, 청색, 녹색을 주로 사용하는데 다양한 색깔 사용으로 분위기가 새로웠다.

○ 풍피드센터도서관 내 10개의 참고봉사코너와 RADIS(원거리 참고봉사실)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질의에 전문적인 참고봉사를 실시하며, 기사색인목록 등과 같은 자체 출판물을 제작하는 등 사서의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풍피드센터도서관은 11시나 12시부터 개관하여 1일 10시간이나 11시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프랑스 내 도서관보다 개관시간이 길다. 우리나라 도서관도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꼭 9시부터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도서관 개방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같은 주제의 도서와 정기간행물, 비도서자료 등은 한 층에, 한 곳에 비치하여 같은 주제의 자료를 쉽게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 2005.7월부터 시작되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근무제도”에 따라 다른 직렬의 공무원보다 토·일요일 근무 등 사서직의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정이다. 풍피드센터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의 경우 근무시간을 직원마다 달리하여 주35시간을 근무하고 보조인력(파트타임)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러웠다.

○ 서가와 서가, 서가 위에 조명, 책상에 개인 조명 및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전기시설도 갖추어, 도서관에서 갖출 비품 설계 시부터 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선자 (대전 갈마가수원도서관)

박찬희 (충남 보령웅천도서관)

공정자 (경기 안성시립도서관)

프랑스국립도서관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 일반현황

가. 기능 및 목적

- 프랑스의 문화적 자료 유산을 관리하는 국립기관으로 프랑스 내에서 발행된 모든 형태의 문서를 수집·보존하여 연구자·학생 전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함.

나. 연혁

- 1537년 프랑스와 1세가 납본법을 선포하여 모든 출판물의 견본관을 왕립도서관에 제출토록 함.
- 1692년 왕립도서관이 최초로 대중에게 개방
- 1789년 국립도서관으로 명명
- 1868년 도서관 열람실 개관
- 1989년 프랑스공공도서관 설립
- 1994년 프랑스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이 통합, 프랑스국립도서관이 됨

2. 운영현황

가. 직원 구성

- 문화부 소속 공무원으로 2,100명임

나. 규모

- 건평 290,000㎡, 서가길이 395km
- 지하층 : 일반열람 및 연구자 이용
지상1층~ 7층 : 사무공간
지상8층~22층 : 자료보관

- 프랑스국립도서관은 서적이거나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원고, 인쇄물, 그림, 사진, 악보, 레코드판, 음악테이프, 지도, 설계도, 동전, 메달, 의상, 극장무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식분야와 재현예술에 관계된 품목을 모두 소장
- 도서는 4권, 오디오는 2점을 납본받고 있음.

다. 이용자

- 16세 이상 입장카드(1일용:5유로, 1년용:15~30유로) 소지자

라. 이용시간

- 화요일~토요일 : 10:00~20:00
- 일요일 : 12:00~19:00
- 휴관일 : 월요일과 부활주일 등 명절과 기념일

마. 자료 현황

- 12,000,000권 소장

바. 1일이용자 현황

- 1층 (좌석수 : 1,700석, 1일이용자 : 2,400명)
- 지하층 (좌석수 : 2,000석, 1일이용자 : 1,100명)

사. 시 설

- 1층 : 안내 데스크와 가방 보관소, 서점, 일반 자료실, 전시회장,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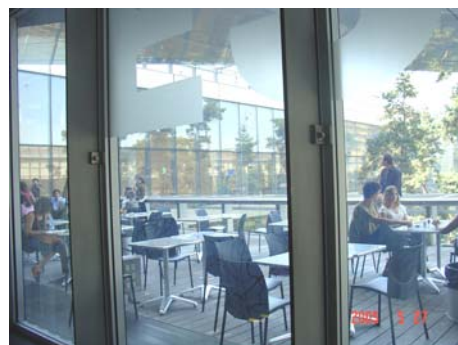
<가방 보관소>



<서 점>



<오디오 자료실>



<야외 휴게실>

- 오디오 자료실 : 4,000여개의 자료와 시청각 자료에 관한 도서 약 5,000권, 300여종의 잡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료 대출은 되지 않으며 사서가 관리하고 있음.

- 지하층 : 자료실, 북카페



<지하층 출입통로>



<자료실>



<장애자 리프트>



<휴게실>

- 지하 자료실 : 연구자들은 자리 예약 및 문서로 주문 가능하며 150개의 발송부와 8km 거리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차 편 네트워크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각 도서관으로 전달됨
- 북카페 : 각 동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음
- 휴게실 : 콘크리트의 재질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따로 인테리어 작업을 하지 않았음.



< ‘조용히’ 안내등 >



< 안내 컴퓨터 >



< 자료안내 프랭카드 >

3. 결론 및 연수소감

54곳의 시립도서관과 31곳의 대학도서관과 전산화된 연합 카탈로그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원하는 문서를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체제임. 정리목록을 공공도서관에 유료 판매하고 있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우리나라 직지심경을 소장하고 있음. 도서관을 출입 할 때는 소지품 검사를 한 후 출입하도록 하고, 지하층을 이용하는 열람자는 케이스에 개인 사물을 넣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이용자와 지하 연구공간을 분리하여 심층적인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지하 연구공간의 경우 의자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장시간 연구를 해도 무리가 가지 않을만큼 고가의 의자를 구입하는 등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음. 2개의 전시실이 있는데 도서관 방문시 “사르트르” 특별 전시 중이었음. 전시회장은 유료로 관람.

특히 인상깊었던 점은 건물 전체가 지하부터 지상까지 자연채광이 들어오게 설계를 해서 자연광과 인공광이 조화롭게 비춰서 책과 이용자를 생각하는 구조로 되어있었으며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고 있었음.

김은주 (전남 나주공공도서관)
 김경애 (경기 성남도서관)
 이정재 (경남 진해시립도서관)

독일국립도서관

(Die Deutsche Bibliothek)



1. 일반현황

가. 연혁

- 1913년 라이프찌히관(구동독도서관) 설립
- 1947년 프랑크푸르트관(구서독도서관) 설립
-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면서 라이프찌히관, 프랑크푸르트관과 베를린음악도서관을 통합하여 독일국립도서관을 설립
- 1992년 19,000m² 규모의 신관 건물 착공
- 1997년 2월 신관 개관

나. 소재지

- Deutsche Bibliothek Frankfurt am Main Adickesallee 1
D-60322 Frankfurt am Main
(Telefon : +49-69-15 25-0 Telefax : +49-69-15 25-10 10)
E-Mail : info@dbf.ddb.de

다. 주요기능

- 국가 문헌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국내·외 모든 출판물 납본
- 각종 국가서지 발간 및 ISSN센터 운영

라. 소장 자료 및 직원 수

- 직원 : 400명(75%여성)
- 자료 : 800만권(프랑크푸르트 전문서적 위주, 라이프찌히관 문학서적 위주, 베를린 음악도서관 : CD, 음악, 예술에 관한 자료 소장)



< 도서관 열람실 모습 >

마. 시설 규모

- 시설비 : 1,200억 정도
- 구조 : 콘크리트구조 지하3층, 지상 3층
- 1 층 : 참고도서 4만권 비치
- 2 층 : 잡지 900종, 주제에 따라 분류
- 자료실 : 실을 구별하지 않고 주제별로 구분만 하여 열린 공간 제공
- 연 면 적 : 19,000m²
- 건물면적 : 47,000m²(2025년까지 자료 수장 가능)
- 지하 서고 현황(30,000m²)
 - 자연 채광을 고려한 설계
 - 항온항습 시설 온도 18℃, 습도 50°
 - 자료의 관리를 위해 출입자 제한(엘리베이터 카드키 사용)
 - 열람실 이용자의 신속한 자료 제공을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
 - 공간 최대 활용을 위한 모빌랙 수동 서가 설치
 - 자료의 신속한 안내 대출 및 정리를 위한 자전거, 전동차 활용
 - 화재시 스프링클러 작동시 자료훼손 방지를 위한 특수서가 제작



< 지하서고 수동식 모빌랙 서가 >



<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

2. 운영 현황

가. 역할 분담

- 라이프찌히관, 프랑크푸르트관 역할 분담
 - 라이프찌히관 보존서고 역할로 고서적의 보관 및 보관에 관한 연구 조사 등 기술개발을 주관
 - 프랑크푸르트관은 정보 분야에 중점 각종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 역할

나. ISSN 및 ISBN

- ISSN은 프랑크푸르트관이 관장하고 있으나 독일 내에서 출판되는 잡지만 보유
- ISBN은 독일 출판협회가 주관하며 약 75% 정도임

다. 납본 현황

- 납본권수 : 2권 이내, 1부는 라이프찌히관으로 납본
- 납본율 : 99% 개인, 단체에서 발행하는 각종 팜프렛, 홍보물 67%
- 자료납본 : 무상 기증 받음

라. 이용 시간

- 월요일~목요일 : 10:00~20:00
- 금요일 : 10:00~18:00
- 토요일 : 10:00~17:00
- 휴관일 : 일요일, 국경일

마. 이용현황 (2004년도 기준)

- 1일 이용자 : 1,700명
- 연간이용권수 : 50만권



< 도서 코너 - 장식용 >



< 독일국립도서관 앞에서 >

바. 자료 관리 운영 실태

- 이용 대상 : 18세 이상, 1일 6권 대출(열람) 가능
- 이 용 료 : 1년(36유로), 1달(13유로), 1일(5유로)
- 자료 분류 : 수입순(등록번호순)
- 자료수집 : 1일 1,200권 수집(1/2인쇄자료, 1/2 비도서 자료)
 - 주제, 내용과 상관없이 망라적 수집
 - 외국에서 독일어로 출판된 도서 수집

- 독일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된 경우, 독일 인물, 독일 관련 주제를 다룬 외국서적도 수집, 필요한 경우 예산으로 구입하여 라이프찌히관으로 보냄
- 나찌시대 외국으로 간 망명자의 일기, 편지 등 자료를 수집
- 인터넷으로 출판되는 도서(전자출판)에 대한 법을 준비중
- PDF로 바뀔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 대두
- 자료 열람 : 개가제 및 폐가제(지하서고 보존 자료)
- 보존 자료의 관외 대출 금지 단, 복사는 가능
- 자료 납본 : 무료 기증
- 자료 폐기 : 폐기 억제(총망라 하여 보존)
- 자료 보안 : 자료 분실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운영
 - 자료 보존을 위한 상호대차를 실시하지 않고 Copy서비스 제공

사. 도서관 전산화 실태 및 타도서관간의 협력

- 업무 전산화 및 독일내 온라인 검색 시스템 구축
- 타 지역 도서관과 협력하여 상호 이용 체제 구축
- 자료 검색 : 멀티미디어 시스템 (PLOLCKE) 설치
- 신체장애자(맹인)를 위한 검색 시스템(S/T)운영, 전용 승강기 설치

3. 결론 및 연수소감

독일의 인구 70만의 도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국립도서관은 1947년에 서점과 출판사의 한 부분으로써 동기화되어 설립되었음. 오늘날 독일국립도서관의 모태가 되었고, 1990년 라이프찌히관, 프랑크푸르트관, 베를린 음악도서관 3개관이 통합되어 설립되었음. 각 도서관마다 역할분담을 실시하고 있음. 라이프찌히관은 문학 작품, 외국서적 및 고서적의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일체의 기능(매뉴얼 복구, 자료의 마이크로필름, 산성화 방지를 위한 기술처리 등)을 수행하고 프랑크푸르트관은 운영의 총괄 및 모든 국내 도서관은 물론 다른 나라 도서관과도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하고 있으며, 합동 데이터베이스, 자치시의 자료들, 국내 도서 서비스, 공동규칙과 기준마련 등 수많은 국내·외적인 과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자료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음.

1913년 이후로 발행된 모든 독일 출판물과 독일어로 된 출판물 등을 지속적으로 완벽한 수집은 물론 많은 공문서 등을 수집하여 정리함에 따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으며 연간 44만권의 소장도서목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금년은 독일이 낳은 대문호 ‘쉴러’ 사후 200년이 되는 해로서 쉴러에 관한 작품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비도서 자료에 관한 납본 관계법령을 수립 중에 있음.

서유럽 대부분의 도서관이 주35시간 근무를 하고 있듯이 독일국립도서관도 주35시간 이외의 초과시간은 파트타임제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하고 있음.

1일 이용자는 1,7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연간 50만권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독일국립도서관 건물의 특징은 콘크리트 구조, 유리, 자연목재를 사용해서 건축되었음. 자연환경 친화를 주제로 지어진 도서관으로서 면적은 19,000m²이며 지하 3층 지상 3층의 건물에 4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지상의 5층 정도의 높이와 예술작품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 설계되었고 울타리 없이 대로변의 자동차 소음을 차단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무동. 자료열람동. 후생동으로 구분 건축되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설계된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음.

[사무동]은 직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각 개인에게 지급된 전산 카드로 출퇴근 시간과 주요시설 출입 등을 이용하게 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열람동]의 벽면. 로비 시설은 유리 돔과 유리 시설을 활용하여 자연광의 반사광을 최대로 하고 있고, 자료실내의 서가나 열람테이블에는 인공조명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료관리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음. 자료실은 실을 구별하지 않고 주제별로 구분만하여 350석 규모로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한국의 도서관들이 천정의 높이가 3m이내인데 비해 4~5m 정도의 높이로 시공되어 쾌적한 독서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 벽면을 없앤 개가열람실은 서가나 비품 등으로 공간을 적절히 구획, 자료나 이용자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각 테이블마다 콘센트를 꽂을 수 있도록 하여 노트북 사용을 통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였고, 유럽의 대부분의 도서관들처럼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 소음을 줄이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토록 설계되었음.

시설과 규모면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여 견고하고도 편리한 시설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학교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가지역의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딱딱한 관공서의 느낌보다는 쇼핑몰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열람실의 도난방지시스템, 보존 서고의 컨베이어시스템 및 화재로부터 자료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안전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자료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

천편일률적인 우리의 도서관 건축과 비교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된 도서관을 보면서 건축자, 경영자, 이용자, 인테리어 업자가 참여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못할지언정 노후된 도서관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도서관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면서 1991년 이후부터는 도서관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비해 서유럽의 도서관들은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점과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정원이 없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음.

우리의 도서관들은 아직도 도서관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정업무와 자유열람실(공부방)기능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40시간 근무제 시대가 도래 하고 있으나, 우리 공공도서관의 현실은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음.

정책당국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도서관 정책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휴식처 제공에 불과할 뿐임. 새벽을 여는 도서관이라고 언제까지 자랑만 하고 있지 말고 이번 연수를 계기로 선진국 도서관들의 잘된 운영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접목시키는 사서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겠음.

김동락 (대구 서부도서관)

고재훈 (인천 주안도서관)

안승현 (충북 금왕도서관)

프랑크푸르트시립도서관
(Stadtteilbibliothek NordWestStadtBibliothek)



1. 일반현황

가. 독일

우리에게 맥주의 나라로 잘 알려진 독일은 맥주뿐만 아니라 장난감처럼 예쁜도시와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고성으로도 유명. 수도는 베를린이며, 인구는 약 8천200만명, 면적은 356.885km²(한반도의 1.6배)이며, 주요도시로는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본등이 있음. 독일의 행정체계는 3계층(연방-주-지자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 주가 서로 협력하고 각기 특수성을 인정하며 상호 존중하는 지방분권이 발달되어 있는 연방국가임

나. 개요

독일의 모든 도서관은 그 기능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으로 구분된다. 공공도서관은 독일의 보편적인 도서관으로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립 및 구립도서관이 있으며, 학술도서관은 주로 연구 목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국립 및 주립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등이 이에 속함. 독일의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을 포함할 경우는 약 14,200개관이 있으며, 그 중에서 지자체가 약 5,400개의 공공도서관과 4,000개의 학교도서관을 책임지고 있음. 학교도서관의 경우도 모든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는 종교기관인 가톨릭 및 복음교회에서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모든 대중에게 개방하고 공공도서관의 사각지대를 보충하여 왔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현상임.

독일 헤센주(州)의 프랑크푸르트시(인구 약65만명)에는 공공도서관이 Stadtbücherei Frankfurt am Main - die (프랑크푸르트시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분관 형태의 19개 소규모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Stadtteilbibliothek NordWestStadtBibliothek(북서시립도서관)도 그 중 하나의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시립중앙도서관은 1845년에 개관한 아주 오래된 공공도서관 중의 하나로 330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다. 이용 시간

- 화요일과 목요일 : 13~19시
- 수요일과 금요일 : 11~17시
- 토요일 : 10~13시

라. 휴관일 : 일요일, 월요일

마. 직원수 : 7명 (사서3명, 보조 4명)

바. 예 산 : 2만유로(약 2천6백만원)

사. 시설 :

- 면적 : 750㎡(약 227평)
- 3층 건물 (1층 : 아동도서, 소설, 잡지, 시청각자료
2층 : 어학 도서,
3층 : 비소설류)

아. 자료 현황 : 60,000여권



< 검색용 PC >

2. 운영 현황

가. 자료 현황

- 자료 수 : 60,000여권
- 자료구성
 - 도 서 : 소설, 수필, 시, 참고도서, 아동도서
 - 비도서 : 신문, 잡지, 음악CD, 테이프, CD-ROM 및 DVD등

나. 대출

- 회원등록
 - 회원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이나 여권이 필요하며, 16세이하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 대출 연회비
 - 도서관 이용 및 안내열람은 무료이나, 자료를 대출하기 위해서는 연회비 1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단 18세이하의 학생에게는 무료로 대출
- 대출 회원수
 - 15,000명정도(실제 이용자는 5,000명정도)
- 대출 기간
 - 도서, 성인 CD-ROM : 4주일
 - 잡지, 아동용 CD-ROM : 2주일(다른 이용자가 없으면 2회연장 가능)
- 대출 권수 : 1회 30권
- 반납 연체료 : 2유로(1주연체시), 4유로(2주연체시), 7유로(3주연체시)
- 연간자료대출수 : 350,000권정도



< 자료실 전경 >

다. 문화 행사

- 목적 : 도서관 이용자 확보를 위한 홍보
- 유아(4세이상)를 위한 행사 : 독서, 책 읽어주기, 연극 등
- 도서관 이용방법 교육 : 초등학생 대상
- 인터넷 사용방법 교육 : 50세이상 노인 대상
- 와인축제 : 포도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내용을 토론
- 현장학습 : 화, 금요일 학생을 대상

라. 기 타

- 인터넷
 - 이용자용 PC : 5대
 - 인터넷사용료 : 시간당 3유로 지불
 - 자료검색, 문서작성 가능
- 복사 : 1매 10센트
- 상호대차 : 실시



< 이동식 아동서가 >

3. 결론 및 연주소감

대부분의 유럽 공공도서관들이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운영되듯이 우리가 견학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Stadtteilbibliothek NordWest-StadtBibliothek도 프랑크푸르트시립중앙도서관의 분관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도서관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있는 열람실(공부방)은 아예 없었으며, 자료실내에 몇 개의 테이블만 놓여 있었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참고하고 대출해가는 지극히 도서관적인 모습이었음. 자료실도 층별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것이 아니었고 그냥 이용대상별로 서가로 구분하여 자료를 별치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해두었음.

아동도서관의 경우 서가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서관에서 행사가 있으면 서가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그 자리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함.

최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강좌운영과 다양한 문화행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강좌나 프로그램은 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단지 도서관 이용자 확보를 위한 도서관 홍보차원의 이용자교육이나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 정도만 운영하고 있었음.

법을 잘 지키고 적용하는 나라이다보니 우리와는 다른 제도가 한 가지 있었는데, 대출하고 3주동안 반납을 하지 않을때에는 경찰이 출동한다고 함.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적용가능할지는 미지수임.

도서관의 위치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쇼핑센터의 중심지에 있었고, 도서관앞에 아이들의 놀이터도 있고 시장도 있어서 시장보러 나온 주부나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위치하고 있었음. 위치면에서나 운영방법면에서 “이용자와 가까운 도서관”이 우리 공공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점이 아닌가 함.

김병재 (전북 익산시립도서관)

이상욱 (경북 안동도서관)

6. 마무리

이번 연수단은 국립중앙도서관 2명, 공공도서관 17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8박10일동안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았던 전문도서관까지 다양한 도서관을 방문하였음. 방문한 6개도서관이 모두 나름대로 차이가 있었고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음. 다양한 이용자 계층과 그들의 각각 다른 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이 적극적인 것으로 보였음.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를 잇는 서유럽의 도서관들의 개략적인 특징을 보면 국립도서관들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료의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리고 국립도서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용자에 대한 보안검색이 공항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방지에 대비한 조치라고 하였음. 이러한 불편에 대해 이용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놀랐음.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이용료를 내며, 연체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상습연체는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많이 다른 점을 알 수 있었음. 지역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가치가 상실된 도서들은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그 비용은 다시 도서구입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에 대한 규정보다 훨씬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었음.

유럽의 도서관들중 국립도서관은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공공도서관이나 참고도서관은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정한 이용(예를들어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도서관운영은 우리보다 훨씬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영국 웨스트민스터 전문도서관 같이 이용자에 따라 특화된 도서관도 필요하며,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국립도서관의 기능이 분리되어 이용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선진도서관 해외연수는 예년의 경우 단순한 시설견학, 프로그램 탐방 등 매년 똑같은 보고서가 나와서 자료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음 연수부터는 주제를 정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여 향후 도서관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음.

끝으로 연수기간동안 우리 단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배운 것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매우 유익하게 작용될것으로 믿으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음.



< 연수단 일동 - 프랑크푸르트시립도서관 앞에서 >

2005 공공도서관협의회 선진도서관 해외연수
- 서유럽지역 도서관 연수결과 보고서 -

발행일 : 2005년 월 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인 쇄 : (주)계문사(T. 725-5216)

〈비매품〉